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5. 20.(월) 08:00 배포 2024. 5. 17.(금) 18:00

‘2024 문화다양성 주간’, 경계에 꽃이 핀다

- 5. 21.~27. ‘2024 문화다양성 주간’, 콘서트와 정책토론회, 청년토론회, 각국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행사 진행
- 5. 21. 전병극 차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개막행사에 참석해 축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문예위)와 함께 5월 21일(화)부터 27일(월)까지 ‘2024 문화다양성 주간*’을 개최한다. 전병극 제1차관은 5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개막행사에 참석해 ‘2024 문화다양성 주간’의 시작을 축하한다.

* 2015년부터 문화다양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인 매년 5월 21일로부터 일주일간 운영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문화다양성 주간’에는 ‘환대-경계에 꽃이 핀다’를 주제로 콘서트와 정책토론회(포럼), 청년토론회,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인구의 5%가 외국인 또는 이민자인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어 이주민에 대한 환대와 우정의 시간을 통해 다양성을 싹 틔우는 사회를 만들 계획이다.

5. 21. 개막행사에서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파트리샤 욤비 등 다국적 인사와 함께 환대의 장 마련

개막행사는 서울 광화문광장 육조마당과 놀이마당에서 열린다. 육조마당에서는 오후 2시부터 문화 다양성 영상상영회를 비롯한 세계의 놀이와 의상, 차, 전통악기, 공예 등 각국 문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영상상영회에서는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협력으로 한국계 캐나다인 안소니 심 감독의 영화 <라이스 보이 슬립스*>도 만나볼 수 있다.

* 캐나다 한국인 이민자의 삶을 다룬 영화로 제2의 <미나리>로 주목받음

놀이마당에서는 오후 5시부터 전병극 차관의 축사와 함께 공식 개막식이 열린다. 개막식 사회는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씨와 아나운서 김민지 씨가 맡는다. 6개국의 다양한 음악인으로 구성한 한국예술종합학교 프로젝트 공연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유네스코 제작 영상(A Thousand Colours)을 함께 시청하고 이주민과 청년 등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문화다양성 주간' 10주년을 공식 선언한다.

개막식 이후에는 음악과 이야기로 이루어진 다양한 콘서트가 이어진다. 콩고 출신 방송인 파트리샤 욤비 씨와 네팔 출신 방송인 수잔 샤키야 씨가 우리나라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카메룬 출신 프랑스 소리꾼 마포 로르, 프랑스 유학파 자작가수(싱어송라이터) 스텔라 장, 특유의 공감 가는 가사를 담은 곡으로 대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4인조 밴드 '소란'은 무대에 올라 다양한 음악 공연을 선사한다.

이번 개막행사에는 누구나 무료로 사전 예약(https://booking.naver.com/booking/5/bizes/896606/items/5863229?preview=0)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석할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운영하고 장애인 참석자의 이동과 관람 안내 등을 지원하는 접근성 매니저도 배치한다.

5. 21.~27. 교보문고·왓챠·지니뮤직과 함께 '문화다양성 큐레이션전' 온라인 개최, 추천 작품 감상평 게시하는 온라인 캠페인 참여자 521명에게 선물도 증정

올해 '문화다양성 주간(5. 21.~27.)'에는 온라인 플랫폼 교보문고와 왓챠, 지니뮤직과 함께 '문화다양성 큐레이션전(展)'을 개최한다. 4회째를 맞이한 이번 온라인 전시에는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의 저자 안톤 쇨츠와 ▲독일에서 온 국악인 안나 예이츠가 최초의 외국인 스페셜 큐레이터로 참여한다. 이들과 함께 ▲<신과 함께> 등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로 잘 알려진

배우 예수정, ▲소설가 정보라, ▲소설가 조해진, ▲동화작가 이금이, ▲정치학자 김지윤, ▲데이터전문가 송길영, ▲가수 안예은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인사 9명이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담겨 있는 책과 영화, 음악 등 작품 총 88편을 소개한다.

아울러 올해는 ’21년부터 ‘24년까지의 ‘문화다양성 큐레이션전(展)’ 작품을 감상하고 ‘모두의 다양성 추천’을 지정 핵심어(해시태그)로 표시해 누리소통망(SNS)에 감상평을 올리는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21명을 선정해 소정의 문화상품권도 선물할 예정이다.

‘문화다양성의 시대’, 공생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와 청년토론회도 개최

문화다양성 관련 논의의 장도 마련했다. 전문가 정책토론회(포럼)가 ‘문화다양성의 시대, 공생을 위한 환대의 길’을 주제로 5월 23일(목) 오후 2시 서울대학교에서 열린다. 이주민 문제에 대한 환대의 개념(구기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 문화다양성과 이주민 통합(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 등 이주민과 다문화, 문화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재의 문화다양성 정책환경을 진단한다. 이후 주제별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공생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토론한다. 5월 24일(금) 오후 3시에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청년 문화다양성 토론회’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다.

‘2024 문화다양성 주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diversityweek.kr)과 누리소통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페이스북(facebook.com/korea.diversity), 인스타그램(@korea_diversity)

제2기 문화다양성위원회 민간위원 10명 위촉

한편, 문체부는 지난 3월, 제2기 문화다양성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3년(’24. 3. 25.~’27. 3. 24.)이다. 문화다양성위원회는 「문화다양성법」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이번 위원회는 「문화다양성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은 물론 다양한 문화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세대, 국적, 분야를 고려해 구성했다.

위원장은 현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성상환 교수이다. 신임 위원은 ▲배은주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 ▲수잔 샤키야 방송인, ▲심지언 월간미술 편집장, ▲안톤 숄츠 코리아컨설트(KOREA-CONSULT) 대표,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제13대 회장,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영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장하은 ㈜오르 디자인하우스 대표, ▲조남호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정호 에투알 클래식 대표(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올해 주위 사람 20명 중 1명이 외국인 또는 이민자인 아시아권 최초의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언어와 종교, 관습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이번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를 통해 타인, 특히 이주민에 대한 환대와 포용, 공생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 문화다양성 주간’ 포스터
2. ‘2024 문화다양성 주간’ 주요 프로그램 일정
3. 문화다양성 큐레이션전(展) 스페셜 큐레이터 명단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정은 (044-203-2511)
		담당자	사무관	양성미 (044-203-25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2024 문화다양성 주간’ 포스터

붙임 2 **'2024 문화다양성 주간' 주요 프로그램**

□ 주간 개요

○ (추진배경) 국제연합(UN) 제정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21.)을 기념하여 우리 국민의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근거) 문화다양성법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 '15년 이후 매년 개최(올해 10회째)

○ (기간/장소) 5.21.(화)-5.27(월)/광화문 광장 등

○ (핵심어(키워드)/주제) 환대/경계에 꽃이 핀다

○ (주요내용) ▲개막행사(다양성콘서트), ▲정책토론회(포럼), ▲청년토론회, ▲문화다양성 큐레이션전(도서, 영화, 음악), ▲참여형 캠페인 등

□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일정
개막행사 (다양성콘서트)	ㅇ △기념행사, △음악&이야기 콘서트, △부대행사(놀이, 차 등 체험 프로그램, 캐나다 영화 '라이스 보이 슬립스' 상영 등)로 구성된 주간 10주년 개막행사	5.21.(화) 14시~20시 (광화문광장)
정책토론회 (포럼)	ㅇ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연계 민-관 합동 정책 포럼 - 주제 : 문화다양성의 시대, 공생을 위한 환대의 길 - 내용 : △주제 발표, △상호토론, △객석 의견청취	5.23.(목) 14시~16시 (서울대학교)
청년토론회	ㅇ 문화다양성에 관심있는 미래세대 간 교류 강화 - △문화다양성 활동 사례 발표, △특별강연, △토론	5.24.(금) 15시~17시 30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다양성 큐레이션전(展)	ㅇ 배우 예수정 등 스페셜 큐레이터 9명이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담긴 책, 영화, 음악 등 작품 총 88편 소개 * 온라인 플랫폼(교보문고, 왓챠, 지니음악) 협업	5.21.(화)~ 27.(월)
온라인 참여형 캠페인	ㅇ '21년~'24년 문화다양성 큐레이션전(展) 감상 후 누리소통망(SNS)에 감상평 게시	5.21.(화)~ 27.(월)

붙임 3 문화다양성 큐레이션전(展) 스페셜 큐레이터 명단 (가나다순)

구분	이름	사진	주요 약력
1	김지윤		정치평론가 겸 정치학자. 한국 정치 및 국제 정세와 여론을 분석하고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저서로 <내 권리는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등이 있다.
2	송길영		데이터로 다양성의 중요성을 말하는 IT전문가.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기록이 담겨 있는 소셜 빅데이터에서 인간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저서<시대예보:핵개인의 시대>, <그냥 하지 말라>, <상상하지 말라> 등이 있다.
3	안나 예이츠		2020년부터 서울대 국악과에서 인류음악학을 가르치는 교육가이자 연구자. 2013년에 판소리를 만났고, 현재 국내외에서 판소리와 국악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민혜성 명창으로부터 사사받았다.
4	안예은		민요와 K-POP을 결합시켜 새로운 음악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동식물과 환경, 사회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러 개의 정기 후원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대표곡으로 '홍연','창귀','문어의 꿈' 등이 있다.
5	안톤 숄츠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는 한국살이 22년차 독일 출신 기자. 문화다양성위원회 민간위원 및 법무부 외국인정책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이 있다.
6	예수정		연극과 영화, 드라마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로, 틀을 깨는 노력과 시도로 다양한 노년 여성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다. 첫 주연 영화 <69세>로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7	이금이		1984년 등단 후 40년간 50여 권의 동화와 청소년소설을 써왔다.일제강점기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를 다룬 <거기, 내가 가면 안돼요?>와 <알로하, 나의 엄마들>, 이주 배경 아동이 주인공인 <밤티마을 마리네 집>이 있다. 2024년 한국인 최초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상(HCAA) 최종 후보 6인으로 선정됐다.

구분	이름	사진	주요 약력
8	정보라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하여 한국에선 아무도 모르는 작가들의 괴상하기 짝이 없는 소설들과 사랑에 빠졌다. 어둡고 마술적인 이야기들, 불의하고 폭력적인 세상에 맞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사랑한다. 2022년 《저주토끼》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최종후보에, 2023년 같은 책으로 전미도서상 최종후보에 올랐다.
9	조해진		타자와의 관계, 특히 난민, 이민자, 입양인 등 경계인이자 소수자의 삶을 다룬 작품을 다수 발표했다. 주요작품으로 <로기완을 만났다>, <여름을 지나가다>, <빛의 호위>, <단순한 진심> 등이 있다. 신동엽 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대산문학상 등 다수 수상.